

| 교수 인터뷰 | 가르침에 대한 성찰

정상조 교수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저작권법〉을 강의하는 법과대학 법학과 정상조 교수를 만났다. 〈저작권법〉 강좌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우수 강좌로 추천되어, 강의 현장을 소개하는 동영상 CD로 제작되었다. 이 강좌는 학생의 수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모든 수강생들이 모의재판 경시대회에 참여하게 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는 우수 강의의 또 한 가지의 훌륭한 사례를 보여준다. 정상조 교수는 법학자로서 법학교육은 물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기술과법센터장을 맡아 기술이 인류에게 던져준 문제들과 법률이 기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도 힘쓰고 있다. 다음과 같이 정상조 교수의 교육관을 들어보았다.

정상조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London School of Economics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숭실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강사를 거쳐 1994년부터 지금까지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知的財産権法』(홍문사, 2004), 『인터넷과 법률』(정상조 編, 현암사, 2000), 『컴퓨터와 법률』(전석진 변호사와 共著, 정보시대, 1995) 등의 저서와 저작권법과 관련한 논문이 있다. 이외에도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기술과법센터장을 맡고 있고,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 자문위원회 위원과 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도메인이름분쟁패널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교수학습개발센터: 선생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저작권법〉 강좌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조 교수: 어느 나라든지 문화와 과학이 발전해야만 선진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저작권법은 그러한 문화와 과학의 발전을 이끌어 주고, 창작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하고 있는 〈저작권법〉은 그러한 법체계를 공부하고,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슈들을 학생들이 논리적으로 검토하게 하는 강좌입니다. 모의재판 경시대회는 수강생들이 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법대만의 독특한 활동인데, 이를 제가 맡고 있는 〈저작권법〉 강좌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제까지 모의재판이라고 하면 재판을 담당하는 소수의 학생들만이 각각 판사, 변호사, 검사 등의 역할을 맡아 마치 한 편의 연극처럼 준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수강생 모두가 다 함께 공부의 일환으로 스스로 모의 분쟁 사안을 연구해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재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의 역할을 맡아서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저작권법에 관련된 모의 분쟁 사안의 문제를 학생들에게 주고, 학생들을 4개의 팀으로 나누었습니다. 모든 수강생들이 그 4개의 팀 가운데 어느 한 팀에 반드시 소속되어 경쟁적으로 문제를 연구하도록 하였습니다. 팀별로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고 공부한 후에, 4개의 팀이 모두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의 모의재판 경시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모의재판의 사건 내용과 진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고, 또 학생의 수업 참여 외에 이를 통하여 얻으신 교육적 효과는 무엇인지요?

정상조: 저는 저작권 문제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선택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일수록 학생들이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시된 사건의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죠. 어떤 학생이 프로그램을 취미 삼아 개발하였습니다. 그

| 교수 인터뷰 | 가르침에 대한 성찰

프로그램을 친구인 다른 학생이 살짝 보고, 이를 약간 개량한 다음 이것을 판매하여 일정한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 경우, 그 프로그램을 애초에 개발했던 학생이 자신의 프로그램이 그렇게 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다가 친구가 돈을 벌게 되니까, 자신의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경시대회 당일 재판부는 총 3인으로 구성되었는데 현직 판사와 현직 변호사 각 1명과 제가 참여하였습니다. 각 팀별로 재판부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재판의 형식을 빌어 발표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총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각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각 팀의 논점을 평가하였습니다. 재판부 3인은 한결같이 모의재판 결과에 대해서 각 팀별로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다들 뛰어나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학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모의재판 경시대회를 실시하였고, 결과는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었고, 이에 대한 반응도 아주 좋았습니다. 결과에 대하여 학생들도 만족하고, 학생들의 재판에 응하는 태도와 준비한 서면의 깊이와 논점의 제시 등에 관해서 수준 이상으로 아주 잘 해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에 대하여 아주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참여 유도 면에서도 성공했고, 학생들의 자질을 높이는 데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학기에도 계속해 볼 생각입니다. 다음 학기부터는 제가 준비를 좀 더 잘 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소재를 좀 많이 발굴하여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모의재판을 수업에 활용하셨다면 이에 대한 학생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상조: 모의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려운 문제를 냅니다. 사건에 대하여 일단 재판에 필요한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가를 봅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에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는가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모의재판 문제에서 제기될 수 있는 법률적인 논점들을 다 파악했는가 하는 것을 보고, 셋째로 이에 관한 논점들에 대해서 얼마나 논리적인 결론을 제시했는가와 같은 세 가지 측면을 평가합니다.



〈저작권법〉 강좌에서의 모의재판경시대회는 수강생 모두가 스스로 모의 분쟁 사안을 연구해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재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의 역할을 맡아서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학생들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강좌에서 모의재판을 도입하신 것 외에 특별히 시도하고 계시는 교수방법과 선생님께서 평소 갖고 계시는 교육관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조: 교수방법은 선생님마다 독자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가능하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강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을 하고, 학생들이 질문을 통해서 가능한 많은 생각을 하도록 만듭니다. 또한 가능하면 자신의 생각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도록 노력을 하죠. 그런 가지 방법으로 모의재판을 경쟁적으로 하도록 한 것입니다.

교육에 대하여 제가 갖고 있는 철학이 무엇인가 물으신다면, 이것은 정말 강의를 하면 할수록 교육이 얼마나 어려운 가를 실감하게 된다는 점으로부터 출발됩니다. 결국은 왜 강의가 힘든가에 대해 저 자신이 반성해 보면 강의와 연구가 다르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뿐만 아니라 강의 자체를 위한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강의는 역시 연구가 밑거름이 된 이후, 이를 통하여 활짝 편 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더 열심히 해서 꽃이 아름답게 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정상조: 강의를 할 때 가능하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한다고 하는 방법의 목표는 분명히 정했지만, 제가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막연히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면 할수록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더 자발적으로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좋고 효과적이라 생각해, 앞으로 그렇게 해야겠다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고시열풍과 관련하여 법학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법학교육의 목표와 관련하여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정상조: 저희 법대 학생들은 고시에 많은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강의에 참여하는 데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저희 법대가 안고 있는 특수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꾸기 힘든 요소 중의 하나지만, 고시 제도를 빨리 바꾸어야 법대에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전체의 학부교육이 정상화되어서 바람직한 교육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법대생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법과대학의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사회대, 공대 학생들도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법과대학에서 아무리 윤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법과대학 학생들이 훌륭한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육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도에 의해서, 사후 검증 장치에 의해서, 사후 징계제도 등에 의해서 보장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한시적인 윤리 교육을 실시하는 것 외에 학생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각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학교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저작권법과 같은 것은 법률을 단순히 외워서 그것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계속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문화 산업,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에 대하여 법조인이 그 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보수적인 법조인이 아니라, 그 발전을 이끌어 주고 도와주는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진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참다운 법학교육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기존의 고리타분한 법전암기식 공부 방법을 버리고, 가능하면 새로운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5

학습지원부 hwbio@snu.ac.kr



서울대학교 우수강의CD 시리즈의 제8편인 정상조 교수 CD '저작권법: 모의재판을 통한 현실법의 학습'. 서울대학교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본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